



보도시점 2026. 4. 9.(목) 15:30 배포 2026. 4. 9.(목) 13:30

중동전쟁 여파 공급망 영향 점검, 구윤철 부총리 필름비닐 생산업체 현장 방문

- 원료 수급 차질·가격 상승 애로 청취, 나프타 확보 등 대응
- 생활밀접 품목 공급 안정 총력,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 공급망법상 위기품목 지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9(목) 15:00 필름·비닐 생산업체(주식회사 유상케미칼)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원료 도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플라스틱 필름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해당 업체에서는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료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 재고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단가 차액지원(추경 정부안 4,695억원) 반영 및 대체수입선 확보 등 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한편, 나프타 수출제한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와 매점매석 현상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에 대하여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4.8일)하였으며, 필요시 가능한 대응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약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약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거래 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확대**(추경 정부안 6,500억원, 정책금융 7.1조원)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 수위탁계약시(주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 위탁기업에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부과(상생협력법 제21조)

**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부총리는 “필름·비닐 등은 산업 및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품목으로, 관련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료 수급부터 생산·유통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발굴·개선하고, 필요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재정경제부 공식 SNS(X, 페이스북)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마련(4.6일~),
재경경제부 홈페이지(moef.go.kr) 배너 구축(4.7일~)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정주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정현경 (gusrud5511@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충현 (chriskim@korea.kr)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성녹영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장규덕 (wkdrbejr1@korea.kr)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2504)